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 동의안

의안 번호	22-35
----------	-------

발의년월일: 2022. 3. 14.

발 의 자: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권영숙

## 1. 주문

-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매장 임대와 관련한 갖가지 불협화음과 갈등야기로 마포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춘기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운영의 총 책임자인 현 이사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 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나. 공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을 개정해 2020년 3월에 기존 다농마트(다농산업)와 마트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0년 9월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월 임대료 4억 1957만 원을 제시한 경보유통이 낙찰 받았음.

- 다. 그러나 경보유통은 사업장 주소를 공단 내 사무실로 사용하는 페이지 컴퓨터로써 회사 설립 후 채 1년이 안 돼 재무제표의 확인이 어렵고, 임대료 납부능력도 담보할 수 없는 등 경제력과 운영능력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
- 라. 또한, 경보유통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 83억 원의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특혜, 이사장의 지인이 설립한 경보유통이 마트매장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담합, 경보유통의 불법 전대계약 목인 등 공단 측의 각종 의혹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전 국민들이 알게 되었음.
- 마. 결국, 공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다농마트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기존 매장 및 협력업체 약 250여 명의 직원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임.
- 바. 그동안 구의회가 수차례 정례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신력을 훼손하였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강경대응으로 공단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음.
- 사. 이춘기 이사장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구민을 위해 공단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임.

아. 이러한 이유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권영숙)은 공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해임만이 실추된 공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이춘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함.

### 3.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6

###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5.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 동의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 동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마포구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마포농수산물시장·관내공영주차장 등을 위탁받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이러한 공단 운영의 총 책임자인 현 이사장이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한 마포농수산물시장 내 마트운영권 공개경쟁입찰 및 낙찰 받은 신규업체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을 개정해 2020년 3월에 기존 다농마트(다농산업)와 마트운영권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0년 9월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월 임대료 4억 1957만 원을 제시한 경보유통이 낙찰 받았다.

그러나 경보유통은 사업장 주소를 공단 내 사무실로 사용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써 회사 설립 후 채 1년이 안 돼 재무제표의 확인이 어렵고, 임대료 납부 능력도 담보할 수 없는 등 경제력과 운영능력 측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는 업체 선정 시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마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과 분석이 필요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단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계약체결일에 임대료와 보증금을 모두 완납해야함에도 경보유통에 약 83억 원의 보증금 납부를 유예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급기야, 이사장의 지인인 고엽제전우회 적폐조사위원회 회장 조 모 씨를 공단 내 사무실에 입주시켜서 그가 설립한 경보유통이 마트 매장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사전 담합을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결국, 공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한 다농마트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낭비되고, 기존 매장 및 협력업체 약 250여 명의 직원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규정’ 개정 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는 기존 규정에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라는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공단 내 소상공인들도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심지어, 다농마트와 공단의 법적 분쟁과 매장명도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보유통은 한 업체와 불법 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 1억 원을 돌려준 사실까지 있었지만, 공단은 경보유통에 단순 계도만 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했다.

그동안 구의회가 수차례 정례회, 임시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사장은 거짓말과 말 바꾸기를 하며 공공기관장으로서 공신력을 훼손하였고,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강경 대응으로 공단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40만 마포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춘기 이사장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구민을 위해 공단을 투명하게 운영할 책무가 있음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인사권자인 구청장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단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40만 마포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진천, 권영숙)은 공단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으며 이사장의 해임만이 실추된 공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여 이춘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엄중히 건의한다.

2022. 3.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강명숙 의원 외 4인